全北日報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사람들

장흥위씨 도문회, 전주대에 국학고전분야 발전기금 기증

2012년 01월 16일 (월) 23:29:59 위병기 bkweegh@jjan.kr

장흥위씨 도문회(회장 위두환)는 16일 오후 3시 전주대 본부 접견실에서 고건 총장에게'국학고전 연구를 위한 발전기금'2000만원 기증식을 갖는다.

특정 종중이 대학의 연구에 기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국학고전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위씨 종중이 최근 고전학 연구 기금을 조성해 전주대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것은 조선후기 여암 신경준, 이재 황윤석과 함께 호남의 3대 학자로 일컬어지는 존재 위백규의 문집(존재집)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에서 완역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함께 2010년 4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추진하는 호남권 고전번역 거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해 전라도 장흥 출신 학자인 존재 위백규의 문집인 '존재집(存齋集)'을 완역했으며, 올 하반기에 '존재집'6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 전북일보(http://www.jja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